ACTIGENCE

AI 업무 활용 과정 · 1회차

AI를 이해하고,
오늘 바로 업무에

AI · 클로드 · 요금제부터 AX의 언어, 프롬프트 기본기까지

PART 01

AI · 클로드 · 요금제

무엇을 고를지, 얼마를 넣을지, 어디까지 되는지

PART 01 · 개념

생성형 AI란 무엇인가

대화로 문서·분석·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도구.
엄청난 양의 글을 학습해서, **다음에 올 말을 확률로 예측**하는 기계.

WHY NOW 01

문맥 이해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

(프롬프트 엔지니어링)

WHY NOW 02

긴 문서를 통째로 다룹니다

(컨텍스트 엔지니어링)

WHY NOW 03

긴 시간 큰 작업을 합니다

(하네스 엔지니어링)

기억할 한 줄 — AI는 다음에 올 말을 확률로 예측합니다.

이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

이 원리 때문에	이렇게 됩니다
확률로 예측한다	**매번 답이 조금씩 다르다** 대응 · 질문 또는 요구를 명확하게
학습한 글을 바탕으로 한다 학습 시점까지의 글이 전부라서 (지식 컷오프)	**학습에 없던 최신 정보는 모른다** 대응 · 딥리서치
그럴듯한 말을 잇는다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하기 위해 (환각)	**틀린 것도 그럴듯하게 말한다** 대응 · 팩트체크

시코팬시(아첨) — AI는 아첨합니다

내가 틀려도
무조건 맞다고 해 줄 수 있습니다.

과도한 공감과 무조건적인 동의.

사용자 피드백을 학습 보상 신호로 더하는 과정에서
모델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답 쪽으로 치우쳤습니다.

AI에게 동의와 공감을 구하는 건 '취미'로만

SYCOPHANCY · 2025.04

시점	사건
4.25	GPT-4o 업데이트 배포 — 기본 성격을 더 직관적이고 유용하게 손봄
4.26~27	무조건 칭찬한다는 사례가 SNS로 확산
4.27 밤	시스템 프롬프트를 고쳐 급히 완화 시도
4.28~29	**철회. 이전 버전으로 되돌림(롤백)**
5.2	원인 공개 — 사전 평가와 A/B 테스트는 통과, 시코팬시 평가는 없었음

할루시네이션(환각) — AI는 날조합니다

MATA v. AVIANCA · 2023

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

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냅니다.

'이게 맞나'고 묻는 건 검증이 아닙니다. 원문으로 확인합니다.

1	원고 측 변호사가 ChatGPT로 법률 서면을 작성
2	**존재하지 않는 판례 6건을 만들어 냄** 사건명 · 사건번호 · 인용문까지
3	변호사가 ChatGPT에게 이 판례들이 진짜인지 확인
4	ChatGPT는 '진짜입니다'라고 답함
5	법원과 상대측이 해당 판례를 찾지 못해 발각
6	2023년 6월 22일, 변호사 2명과 소속 로펌에 제재금 합계 5,000달러

작업 순서 — 초안, 검수, 발송

STEP 01

AI가 초안

빈 화면 채우기
여러 버전 뽑기
빠르게 다시 쓰기
정합성 검증(팩트체크)

→

STEP 02 · 사람

최종 검수

사실 확인
최종 판단
발송 결정

→

STEP 03

발송 및 적용

실제 사용
히스토리 기록
누적 학습 데이터 생성
데이터 지속 업데이트

초안은 AI가,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.

PART 01 · 2026년 11월 기준

GPT · 제미나이 · 클로드

	ChatGPT	Gemini	Claude
개발사	OpenAI	Google	Anthropic
성격	만능형 · 폭넓은 기능과 연동	구글 서비스와 한 몸	코딩 · 에이전트 작업에 강함. 아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(헌법적 AI)
강점	이미지 생성, 앱 · GPTs 연동	Gmail · 드라이브 · 캘린더 연동, 검색 결합	긴 문서 처리, 데스크탑 앱에서 폴더 · 파일 작업
약한 곳	답변이 장황해질 때가 있음	구글 생태계 밖에서는 이점 감소	이미지 생성은 주력이 아님 (별도 도구 연결)
이런 일에	아이디어 발산, 이미지 만들기	메일 · 일정 · 문서 정리	기획 문서 · 보고서 · 데이터 분석

용도가 다른 건 맞지만, 실무 역량 기준으로는 클로드를 기본 도구로 삼습니다.

클로드는 하나의 3층 구조

3층 · 클로드 코드

내 컴퓨터 조작, 코딩 등 가장 넓은 작업

2층 · 클로드 코워크

연결한 내 컴퓨터 폴더를 직접 읽고 쓰기

1층 · 클로드 채팅

웹·앱에서 대화, 문서작업, 디자인·슬라이드(클로드 디자인)

위층 하나만 익히면 아래층은 저절로 됩니다.

요금제 — 무엇이 달라지는가

같은 유료라도 사용량이 다르고, 쓸 수 있는 최상위 모델도 요금제에 따라 달라집니다. 가격은 공식 요금제 페이지 (claude.com/pricing)에서 확인합니다.

요금제	사용량	현실적으로 되는 것
Free	최소	채팅용. 업무용으로는 부족합니다
Pro	기준 1배	문서 · 메시지. 파일 작업을 시작하면 금방 한도 (작은 프로그램 코딩 가능)
Max	**Pro의 5배**	**실무 표준. 문서 · 데이터 · 도구 만들기**
Ultra	Pro의 10배 (주간)	종일 · 여러 작업 동시(멀티세션) · 인증 계정은 5시간 한도 없음

사용량이 많아야만 가능한 큰 작업들이 있어서, 사실상 생산성 차이는 극명합니다.

유의미한 결과물을 내기 위한 기본 세팅

ALL WE NEED IS TOKEN — 비용 없이는 무의미

세팅	이유 · 목적
데스크탑 앱	연결한 폴더를 직접 읽고 수정할 수 있고, 클로드 코드도 이 앱 안에서 실행
클로드 코드	그냥 채팅만 하더라도 '클로드 코드'로 시작
항상 최상위 모델로	요금제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모델 선택 (모델 이름은 수시로 바뀜)
사고 강도를 최대로	노력(effort) 최대 — /effort 로 설정, 최대(max)는 그 세션에만 적용
'권한 우회' 모드	Bypass permissions — 확인창과 안전 점검이 꺼짐. 격리된 환경에서, 믿고 맡길 때만

채팅이 아니라 실제 업무 적용과 직접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용료를 내고,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.

LIVE DEMO · 강사 화면

클로드 코드 멀티세션 작업

화면 1 · 여러 세션을 동시에 굴리는 화면
화면 2 · 문의 응대 과정

PART 02 · 개념

AX의 언어

AX · 워크플로우 · SSOT · 챔피언

PART 02

AX란 무엇인가

AI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

DX · DIGITAL TRANSFORMATION

아날로그 → 디지털

종이 결재 → 전자 결재

AX · AI TRANSFORMATION

디지털 → AI

사람이 하던 판단 · 작성을 AI가 초안

AX는 무엇을 줄이는 전환인가

DX — 무엇을 줄였나

종이를 줄이고 → 문서 파일로 관리

캐비닛 → 하드디스크

AX — 무엇을 줄이나

문서 파일도 줄이고 → 데이터로 관리

원본 하나만 남기고, 파일은 필요할 때 AI로 작성

지금 · 파일 6개, 데이터 1개

```
교육 운영 현황.xlsx
└ 회차별_정리.xlsx
└ 주간보고_1주차.docx
└ 최종보고.pptx
└ 최종보고_수정.pptx
└ 최종보고_진짜최종.pptx
필요할 때 즉시 만들 수 없으니, 일단 만들어 놓고 버전업
```

AX · 데이터 하나

```
교육 운영 현황 (구글 시트 또는 DB)  ← SSOT
├ 주간보고가 필요하면 → 즉시 문서 생성
├ 임원보고가 필요하면 → 즉시 문서 생성
└ 발표가 필요하면 → 즉시 문서 생성
데이터로 두고 분석·개선하다가, 필요할 때 만듭니다
```

종이에서 파일로, 파일에서 데이터로

PART 02 · 핵심

「AI 활용」과 「AX」

	AI 활용	AX
무엇을 바꾸나	도구	일의 흐름
하는 일	하던 일을 그대로, 더 빨리	거치던 단계를 없앤다
범위	개인 생산성	조직 역량
끝나면	같은 일을 조금 빨리 한다	일 자체가 없어진다

STEP 01

AI를 배우는 직원

STEP 02

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직원

STEP 03

AI로 업무를 개선하는 직원

STEP 04

AI 업무도구를 직접 만들어 쓰는 직원

PART 02

AX를 세 조각으로

AX =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

무엇을 바꾸나

워크플로우

일의 순서

무엇을 근거로

SSOT

단 하나의 원본

누가 바꾸나

챔피언

실제로 굴리는 사람

PART 02 · 1

워크플로우 — 같은 업무, 세 가지 상태

설문 결과 보고서 · day → hour → minute

지금 **1~2일**	설문 수거 › 엑셀 정리 › 집계 › 차트 › 보고서 작성 › 검토 › 발송	day
AI 활용 **3~4시간**	**설문 수거 › 엑셀 정리 › 집계(AI) › 차트 › 보고서 작성(AI) › 검토 › 발송** 한 칸씩 바뀜	hour
AX **30~40분**	**설문 수거 › 집계 · 차트 · 초안을 한 번에 › 사람이 검토 › 발송** 칸이 사라짐. 순서가 바뀜	minute

즉석 실습

내 워크플로우의 병목 찾기

반복 업무 하나를 떠올리고, 세 가지를 물으십시오.

1

이 흐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어디인가

2

그 단계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가

3

그 단계의 입력과 출력이 정해져 있는가

셋 다 「예」라면 — AI로 바꿀 1순위입니다.

PART 02 · 2

SOT · SSOT — 단 하나의 원본

워크플로우 단순화의 핵심

약어	원어	뜻
SOT	Source of Truth	진실 공급원 — '이게 맞다'고 할 때 보는 것
SSOT	**Single Source of Truth**	**단일 진실 공급원 — 그게 하나뿐인 상태**

한 줄로 — 이 주제에 대해 「이게 맞다」고 할 때 보는 단 하나의 원본

SSOT — 증상과 만드는 법

증상 · 하나라도 해당하면 없는 상태

- 최종_최종_진짜최종.xlsx 가 있다
- 같은 숫자를 두 사람이 다르게 말한다
- 어떤 게 최신인지 물어봐야 안다
- 규정이 메일 · 공유드라이브 · 개인 PC에 흩어져 있다

2개 이상의 데이터를 크로스체크해야 완전해집니다.

만드는 법 · 3단계

1 정한다 (통합한다)

이 주제의 원본은 이 파일 하나

2 표시한다

나머지는 _참고 또는 아카이브 폴더로

3 갱신한다

바뀌면 원본만 고친다

2회차에 만드실 도구의 PRD가 그 도구의 SSOT입니다.

SSOT는 .md로 둡니다

AI 워크플로우의 핵심 파일 — MARKDOWN

서식을 기호 몇 개로 적는, 그냥 텍스트 파일입니다. 메모장으로 열립니다.

1 AI가 가장 잘 읽고 씁니다

구조가 글자에 그대로 드러납니다

2 사람도 읽을 수 있습니다

전용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

3 가볍습니다

긴 문서도 통째로 AI에 넣을 수 있습니다

사람이 읽지 않는 코딩 문서는 md + 영어로 작성합니다.

예시 · status.md

```
# 교육 운영 현황

## 이번 주
- 대상: 팀원 30명
- **핵심**: 설문 집계 자동화
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응답 | 28 |
```

샵(#) · 하이픈(-) · 별표 두 개(**) 세 개면 충분합니다.

PART 02 · 핵심

파일 전환 프로세스

◀ AI가 읽고 쓰기 쉬움 · 구조가 전부

사람이 읽고 쓰기 쉬움 · 보기가 전부 ▶

원본 · SOT

.md

내용이 맞는가
순서가 맞는가

고치기 쉬움

→

화면 확인

.html

한 화면에 들어오는가
강약이 맞는가

고치기 보통

→

회람 · 편집

.docx

회사 서식 · 문체에 맞는가

고치기 번거로움

→

최종 배포본

.pdf · .pptx

인쇄 · 발표에서 깨지지 않는가

고치기 어려움

내용 · 구성 등 기본 틀을 고칠 일이 생기면 md 파일을 고치고 다시 내려보냅니다.

docx, pptx 등 최종 파일을 직접 고치는 건 마지막에

PART 02 · 3

챔피언 — 실제로 굴리는 사람

조직 안에서 그 변화를 실제로 굴리는 사람 — AI 업무 활용을 '압도적으로' 잘하는 직원

1

업무를 매우 빠르고 쉽게 처리한다

2

점점 더 빠르고 쉽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한다

3

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, 다른 직원도 쓸 수 있게 한다

직책이 아니라 역할입니다. 회사에 단 1명만 있어도 회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.

여섯 개의 말 — 한 장 정리

용어	뜻
AX	AI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
AI 활용 ↔ AX	도구를 바꾸는 것 ↔ 흐름을 바꾸는 것
워크플로우	하나의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일의 순서
SOT · SSOT	「이게 맞다」고 할 때 보는 단 하나의 원본(정본)
챔피언	조직에서 그 변화를 실제로 굴리는 사람
.md · 변환 사다리	SSOT는 md로 두고 → html → docx → pdf · pptx. 아래로만 내려간다

PART 03

AI 기본 활용법

메타 프롬프팅 · 끝까지 시키기

프롬프트 엔지니어링 — 메타 프롬프팅

나쁜 예

나는 인재개발 담당이야.

다음 달에 임직원 30명 대상 AI 교육을 4회차로 진행해.

참가 확정자에게 보낼 안내 메일을 써 줘.

5문장 이내, 존댓말, 일정 · 장소 · 준비물이 반드시 들어가고, 제목도 같이 제안해 줘.

좋은 예

[역할 정의]
너는 기업 인재개발(HRD)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'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및 사내 교육 기획 전문가'야.
[배경 및 목적]
다음 달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4회차 AI 실무 교육을 진행해. 참가가 확정된 직원들에게 일정 안내와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 메일을 작성하려고 해.
[수신자 페르소나]
- 임직원 30명 (바쁜 일과 중에 교육에 참여하는 상황)
[메일 작성 조건 및 제약사항]
1. 어조: 격식 있고 정중하며 신뢰감을 주는 비즈니스 존댓말
2. 분량: 인사말 및 본문 문장은 정확히 5문장 이내 (정보 제공용 리스트는 제외)
3. 필수 포함 정보: 교육 일정(회차별 일시 변수) · 교육 장소(위치 변수) · 사전 준비물(개인 노트북, 특정 계정 등)

PART 03

「친절한 떠넘기기」 — 속지 말고 끝까지 시키세요

이렇게 시켰을 때 돌아오는 답

자료를 통합하여 표로 정리하는
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1단계 : 새 통합 문서를 엽니다
2단계 : 데이터 탭에서 '데이터 가져오기'
3단계 : 각 파일의 항목을 매핑합니다
...

아주 친절합니다.
그런데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.

물러나지 마십시오 — 세 번 더

1 **아니, 네가 직접 해봐.**
다시 시킨다

2 **너 할 수 있잖아. 어떻게든 해봐.**
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

3 **정 안 되면, 네가 직접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말해.**
필요한 것을 묻는다 — 여기서 진짜 답이 나옵니다

AI는 뭐든지 직접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십시오.

ACTIGENCE

마무리

배운 것이 아니라,
쓰는 것만 남습니다.

다음 주까지 딱 하나만 실제로 써 보십시오.
2회차는 무엇을 써 봤고 무엇이 잘 안 됐는지로 시작합니다.

actigence.ai · cio@actigence.ai